

체험적 실천에 기초한 환경운동 연구

곽찬별(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서론	본론
찾은 이상기후 현상과 폭염의 연속은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끔 했다.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침수, 동식물 영역의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작물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식량난과 같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류 집단 폐사,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증가하며 지구온난화가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는 협약을 통해 환경문제해결을 공조하고, 각국에서는 친환경 정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탄소 배출량 규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권고하거나 일부 부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온난화 현상은 심각하다. 점차 임계점-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시점-을 향해가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정부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기업과 정부를 감시하며 환경 담론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활동이 적어 영향력이 부족하다. 또한 여러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시민들과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험적 실천에 기초한 환경운동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 체험적 실천 (1) 체감과 일상적 경험 개인이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상에서 직면하는 것을 체감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세먼지로 흐려진 풍경을 눈으로 관찰하거나, 폭염경보가 발령될 정도의 기온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있다. 이처럼 감각적인 인식의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상적 경험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외부 환경에 의한 상황을 직면하고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당사자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갖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한 인지 수준의 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체험으로 발전시킨다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 → → 체감 경험 체험 환경운동 감각적 인식 경험적 인지 의미 부여와 실천 집단적 공감대 형성 (2) 체험적 실천 사회학적인 의미로 체험은 일반 경험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외형적이고 객관적이다. 이와 다르게 체험은 내면적이고 주관적이다. 경험이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체험은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체험이란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기존에 체감하고 경험했던 환경문제를 이와 같은 체험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체험적 실천에 기초하여 환경운동의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본론	결론
2) 환경운동의 방법 (1) 플로깅 (Plogging) 플로깅은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올바른 분리수거로 마무리하는 대표적인 체험적 실천의 방법이다. 간단한 준비물과 그에 따른 적은 비용을 통해 시민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플로깅을 통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과 잘못된 분리수거의 현실을 인지함으로써, 경각심을 갖추는 동시에 본인이 직접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적 실천이 가능하다. 효율적이고 간단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쉬운 방법이므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도 체험적 실천에 기초한 다양한 환경운동 프로그램으로서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업사이클링 사용 캠페인 등의 환경운동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2) 환경운동의 방향성 환경운동은 점차 정치적인 논쟁 사안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심해질수록 시민들의 피로도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환경활동가와 환경단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그라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조직은 환경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정치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체험적 실천으로 환경문제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들이 해당 문제에 관한 집단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환경운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운동에 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체험적 실천의 방법을 제안하고 시민참여 확대 방안과 환경운동의 발전 방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적 연구방법을 적용했으나, 구체적인 통계에 기초한 학술적 논문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환경단체와 관련 NGO를 발전시키고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환경운동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체험적 실천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험적 실천의 환경운동을 환경단체에서만 시행하기는 어렵다. 환경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할 경우 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기관이 환경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NGO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NGO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초가 된다면, 환경운동과 관련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여 환경운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